

ESG

Weekly Focus



ESG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러시아궤 갈등,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 앞당기나 *녹색경제신문*
- LG엔솔, 獨 회사와 수산화리튬 공급계약...공급망 다변화 나서 *이코노미스트*
-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고공행진 지속 전망...석탄 발전이 주 요인 *ESG경제*
- 비건도 고기 먹고 가족 입는다...'착한 소비'에 씨뿌리는 기업들 *머니투데이*
-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에...재활용 사업 속도내는 화학업계 *서울경제*
- EU, 원전 녹색에너지로 분류한 핵소노미 확정...공지 물린 文탈원전 *데일리안*
- "쌀포대가 멋진 가방으로"...식품업계에 친환경 바람 *뉴시스*
- 벼랑끝 LPG충전소...수소 전환서 활로 모색 *매일경제*
- 친환경 소비 '대체육' 트렌드... 올해 식품업계 다크호스 될까 *녹색경제신문*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현대ENG 상장 연기...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제동' *ESG경제*
- 에피스 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성장 보릿고개' 넘을까 *이코노미스트*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반납 노선은 누가 가져갈까 *머니S*
- 포스코, 지주사 전환에 사업회사들 관심...2차전자·수소·신소재 등 *아시아경제*
- 여성 사외이사들도 'ESG리더십 과정'서 열공 *매일경제*
- 삼성물산, 美 SMR 기업 뉴스케일파워에 362억 추가 투자 *이데일리*
- 한컴-케이단, 싱가포르에 '한컴홀딩스' 공동 설립 추진 *뉴시스*
- 쌍용C&E, 삼호환경기술 전격 인수...시멘트 넘어 폐기물처리 '주력' *서울경제*
- 활동 왕성한 식품업계 오너家 여성 리더 3인 *머니투데이*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중대재해법 대응 나선 삼성전자, 보험중 휴대폰 사용 금지 의무화 *한국일보*
- "취도 문제, 안 취도 문제"...호실적 LG·삼성·SK '성과급 갈등' *한국경제*
- 동종업체 몰래 차리고 퇴사 전 컴퓨터 포맷 '자료삭제'...대법 "업무방해" *뉴스1*
- 개정 자본시장법, 유리천장 깰 해법 될까 *녹색경제신문*
- '건강 복지' 나선 기업들, 백신 휴가 기본...의료비까지 *뉴시스*
- 삼성전자 노조, 4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창사 첫 파업 가능성도 *한국일보*
- 택배업계 선제 대응에 "택배 대란 없었다"...노조 "끝까지 간다" 갈등계속 *뉴스1*
- 김성원 의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기사 14명 산재 사망" *연합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S 리스크' 부각된다... "기업 평판에 치명적" *녹색경제신문*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2050 탄소중립에 매년 전 세계 기업 이익의 절반 투입해야...연 평균 9.2조 달러 소요 *ESG경제*
- 글로벌 ETF로 읽는 미래 트렌드...유전자 가위·기후대응 투자 *녹색경제신문*
- 국민연금, 현대산업개발·오스탬임플란트 중점관리할까 *서울경제*
- ESG가 베타에 미치는 영향 Part 2: 자산운용사의 투자 프레임 *동아일보*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본격화...기관투자자 적극적 의결권 확보 중요해져 *뉴스1*
- 산업은행, 녹색채권 또 찍었다...저탄소 전환 지원 *더벨*
- 사우디, 脫석유·디지털 혁신에 7.7조 투자...스타트업에만 1조 *머니투데이*
- 코알라, 인류 생존·생물다양성 위해 소비자화 '2인 3각' *아시아경제*
- HRW "토탈 미안마 철수, 근본적인 해결 아니다"...문제는 자금동결 제재 *녹색경제신문*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SG FOCUS UPDATES

수소경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2.01.28****E**

- 수소 밸류체인은 생산, 유통(저장·운송, 충전), 활용(연료전지, 수소차)으로 크게 구분되며, 국내 수소관련 기업은 업체 수, 규모면에서 활용 부문의 비중이 큰 편임
- 전체 수소관련 기업(127개)의 최근 3년간 성장성과 수익성은 코로나 여파로 악화되었으나, 수소 관련 매출이 30% 이상인 수소 주력기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시현
- 유통은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롯데케미칼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실적은 부진했으나, 수소 주력기업은 매출액(7.0%)과 영업이익(97.7%)이 큰 폭으로 증가
- 운송 부문은 파이프라인 과점 4개사(덕양, SPG, 에스디지, 창신화학)와 저장용 기 핵심소재 개발에 성공한 이엔케이, 일진하이솔루스 실적이 크게 개선
- 충전 부문의 경우, 매출액이 14.9% 늘어났으나 운송비용 부담에 따른 마진 축소, 연구개발 지출 부담으로 이익이 감소
- 부문별 경쟁력을 살펴보면 연료전지와 수소차가 속한 활용 부문은 선도국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반면 생산은 원재료와 전기이용료 부담으로 경쟁력이 취약함
- 탄소가 배출되는 않는 블루·그린수소 중심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으나, 국내는 원재료(천연가스)와 청정에너지 발전원 단가가 높아 구조적인 경쟁력 열위가 불가피
- 산업용 수요 증대뿐만 아니라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과 발전용 연료전지 수요 확대로 수소 수요는 2020년 20만톤에서 2040년 980만톤까지 늘어나면서 유통, 생산 부문도 큰 폭으로 성장할 전망
- 그린수소의 자급을 위해서는 발전원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나, 재생에너지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발전과 같은 저탄소 발전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시장 규모가 큰 활용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통 부문에서 우량 기업들을 발굴·모니터링하여 대출·투자 의사 결정시 적극 활용할 필요

한국형 사회적 분류체계(Social Taxonomy) 구축 필요성 및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2.01.25****S**

- 지속가능금융은 실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상품·프로세스로서 환경적 임팩트와 함께 사회적·경제적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금융활동을 지칭함
- 지속가능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정 경제활동의 지속가능발전에의 기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분류체계(Taxonomy)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녹색 분류체계의 경우 유럽연합(2020년) 분류체계가 글로벌 벤치마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환경부가 작년말에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하였음
- 한편, 사회적 분류체계의 경우 유럽연합(2021년)이 초안을 제시한 이후 주요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사회적 분류체계는 사회분야 지속가능 발전목표(UN SDGs 내 빈곤퇴치, 기아종식, 양질의 교육 등) 달성 여부에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함
- 이는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문화재 파괴 등이 수반되지 않아야 하는 등 일정 수준의 사회적 기준(minimum social safeguards) 달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도 사회적 분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1)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 2) 사회적 판단기준 등에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의 경우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로 기본 필수품 및 경제 인프라에의 소비자 접근성 보장, 일자리 제공, 소비자 이익 제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도모 등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럽연합은 사회적 판단기준으로, 첫째 복수의 사회적 목표 중에서 특정 사회적 목표 달성에 상당히 기여하는지 여부, 둘째 기타 나머지 사회적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지 여부, 셋째 최소한의 환경적 보호장치 준수 여부 등의 복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 요건 판단기준에 최소한의 환경보호 준수 여부를 포함하는 것이 지속가능금융 활성화에 긴요할 것으로 판단됨
- 녹색 분류체계에서의 사회적 요건 충족을, 사회적 분류체계에서의 환경적 요건 충족을 상호 요구함으로써 환경적, 사회적 임팩트가 상호 선순환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실물부문 지속가능발전 도모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E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른 액화수소 필요성 증대

- KDB 미래전략연구소 22.01.25

- 액화수소는 수소기체를 끓는점(-253℃) 이하로 온도를 내려 액상 상태로 변환한 제품으로,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고압의 수소기체(이하 고압수소)에 비해 높은 저장용량 등의 장점을 보유
- 고압수소는 부피가 큰 수소기체를 200~700bar로 압축하여 이동이 용이하도록 만든 제품으로 현재 수소는 고압수소로 유통되고 있으나, 고압으로 인해 폭발 위험이 있으며 액체수소에 비해 이송 효율이 낮음. 액화수소는 고압수소에 비해 부피가 1/2~1/4로 작아 많은 양의 수소 수송 및 보관이 가능
- 액화수소는 수소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기체 수소를 액화시킨 후, 액화 수소용 탱크로리 차량을 통해 수소충전소로 공급하는 구조임
- 수소 용도는 크게 차량 등 운송용 연료 및 정유업 등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며, 산업용 원료는 대부분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소생산공장에서부터 직접 공급받기 때문에 액화수소는 대부분 운송용 연료로 사용
- 국내 수소 수요는 '22년 47만톤에서 '40년 526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내 수소차 보급은 '21.4월 1.2만대에서 '40년 290만대로 증가하고, 수소발전은 '22년 1.55GW에서 '40년 17.1GW로 10배 이상 성장 예상
- 수소시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저장 및 운송이 용이한 액화수소 시장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 미국과 일본의 경우 수소충전소의 액화수소 공급비율은 각각 87%, 63% 수준 으로, 고압수소 대비 액화수소 공급비율이 높음
- 글로벌 액화수소 시장은 린데(영)가 50%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 에어리퀴드(프), 에어프로덕츠(미) 등 글로벌 가스 기업들이 원천기술 보유 및 생산 중. 린데는 독일 Leuna 공장(5톤/일) 등 전세계에서 다수의 액화수소 설비를 구축·운영 중임
- 아직 국내 액화수소 생산시설이 없으나, 최근 린데코리아·효성중공업, 에어 리퀴드·SKE&S 등이 협력하여 국내 액화수소 플랜트 건설 추진 중
- 국내는 현재 액화수소 관련 수소충전소 등 수요설비가 없는 상태로, 안정적인 액화수소 판매를 위해서는 국내 액화수소 인프라 활성화가 중요함

공개정보기반 ESG 평가기관의 평가체계 비교분석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2.01.31

A

- ESG 평가기관 중 공개정보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의 ESG를 평가하는 분석기관에는 Sustainalytics, ISS(ISS ESG), Vigeo Eiris가 대표적이며, 기관별 평가의 내용 및 특이점 등을 확인하여 서로 다른 평가기관이 제시하는 평가결과의 함의를 살펴봄
- Sustainalytics는 ESG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개별 산업 및 기업의 ESG 리스크 노출 수준과 기업별 리스크 관리 수준을 계량화하여 '관리되지 않는 ESG 리스크'를 특정 기업의 ESG 리스크로 정의함
- Sustainalytics의 ESG 평가는 ESG 리스크 평가로 비재무 요인에 의한 ESG 리스크의 계량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MEI(Material ESG Issue), 기업 리스크 노출 계수(β), MRF(Measurable Risk Factor), 리스크 관리도(%) 등 평가에 활용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계량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업의 ESG 리스크(관리할 수 없는 리스크+리스크 관리 역량 대비 관리하지 못한 리스크)를 산출함. 평가기관 고유의 ESG 리스크 평가방법론에 따라 여러 정량 데이터가 파생됨
- ISS는 의견권 자문과 더불어 투자자 중심의 ESG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따라 ESG 평가가 기업 ESG 등급평가, ESG정보공개 점수, 지배구조 점수 등으로 다각화되어 있음
- ISS의 기업 ESG 등급평가는 Best-in-class 기반의 지속가능성 평가로, 절대적 지표와 상대적 지표를 모두 적용한 평가결과가 도출됨. 평가등급의 경우, 평가점수를 기반으로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는 등급이 부여됨. 이와 더불어 평가점수에 따른 산업별 10분위 순위 및 Prime 해당 여부를 제시함으로써, 특정 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의 평가결과가 업종 내에서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자 혹은 기업과 같은 정보이용주체는 투자 의사결정, ESG 경영 현황 진단 등 정보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결과 해석이 가능함. 반면, ISS의 ES 정보공개 점수는 기업의 정보공개 관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투자 의사결정 시 기업의 정보 공개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활용 가능함
- 유럽 태생의 ESG 평가기관인 Vigeo Eiris는 중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가려내기 위하여,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기준 삼아 이해관계자 관점이 주요하게 반영된 ESG 평가를 실시함
- VE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기준 삼아 이해관계자 관점이 주요하게 반영된 ESG 평가를 실시함. 기업별 ESG 관리도 평가 시 ESG 관리에 있어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기업에 기대되는 여러 활동들을 규정하고(Principle of Action), 이를 토대로 점수를 부여하는데 이때 글로벌 가이드 라인이 Principle of Action의 근간이 됨
- 뿐만 아니라 업종별 ESG 중요도 평가에도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이해관계자 리스크가 함께 고려됨. VE의 ESG 평가는 바람직한 ESG 경영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 및 이해관계자 함의를 반영하며, 따라서 VE의 ESG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글로벌 기준 대비 ESG 경영이 건실한 기업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린워싱(Greenwashing)과 지배구조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2.01.31

- 최근 ESG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가치 증대를 위한 핵심 의제로 급부상하면서, 그린워싱(Greenwashing)에 관한 논란도 함께 확대되고 있음. 그린워싱은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인지하는 기업의 ESG 수준이나 성과를 왜곡하는 등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실증 분석 결과, 4개의 세부 요인들이 - 1) 사외이사 비율의 증가, 2) 기관투자자의 비중 증대, 3) 높은 반부패 수준, 4) 교차 상장 상태 -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ESG 그린워싱 행위를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짐**
-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2가지 세부 요인인 '사외이사 비율'과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ESG 그린워싱 행위가 강하게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됨
- 이 같은 결과는, 사외이사와 기관투자자에 의해 작동되는 기업에 대한 ESG 모니터링 기능이 기업의 ESG 그린워싱 현상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
- 도이치뱅크의 계열사인 자산운용사 DWS는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펀드를 ESG 금융상품으로 규정, 실제 수준보다 과대하게 ESG 투자 규모를 공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2021년 8월 독일과 미국의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음
- DWS의 2020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ESG와 관련된 자산은 운용자산 전체 (9,000억 유로)의 약 절반가량 (4,590억 유로)을 차지함. 그러나 DWS의 전직 지속가능경영 책임자는 실제로는 DWS에 ESG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ESG 기준을 충족시키는 펀드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면서 ESG 관련 자산 규모에 대한 정보는 허위공시에 해당한다고 고발함
- 이 같은 그린워싱 의혹에 대하여 DWS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였으나, 미국과 독일 양국의 금융 감독기관의 조사가 8월부터 시작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약 14% 하락(8/25 41.72유로 → 8/26 36.02유로)함
- 한편, 조사를 수행한 독일 금융감독 당국은 DWS가 법적 의무를 준수했는지, 지난 회계연도의 투자 조건에 따라 펀드를 관리했는지 등을 판단하고, 이와 더불어 DWS의 연간 감사보고서도 면밀하게 조사 검토하여 그린워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
- 이는, DWS의 ESG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외부 평가기관의 ESG 등급에만 의존하여 ESG 자산을 자의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상기 그린워싱 사례가 취약한 지배구조로 인한 내부통제의 미비·미흡과 그린워싱의 발생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사례라는 것을 보여줌
-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내 ESG 열풍 속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측면을 넘어, 기업의 전사적 ESG 성과 및 수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린워싱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이는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그린워싱 행위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KCGS의 2021년도 지배구조 평가대상기업의 1/3 이상은 B이하 등급을 기록(약 33.8%) 하였는데, 이는 국내 상장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수준을 나타냄
- 이러한 환경에서, 그린워싱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지배구조 측면의 개선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앞서 소개한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업의 사외이사와 기관투자자의 존재 및 활동이 그린워싱 발생의 억제와 완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 기업은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율을 높이고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관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ESG 모니터링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E

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K R B N

KraneShares Global Carbon Strategy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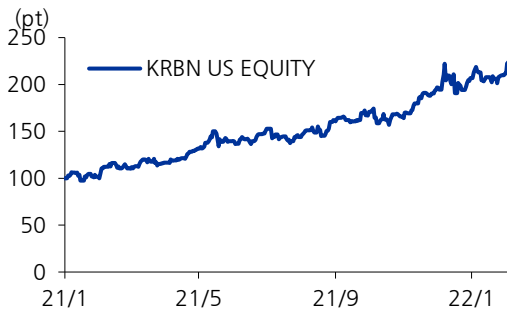
-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둔 ETF
- IHS 마켓의 세계탄소지수를 트래킹하며 EUA(유럽 연합 탄소배출권), CCA(캘리포니아 탄소배출권), RGGI(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 미국)에 투자하고 있음
- 탄소배출권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롤오버 비용이 주기적으로 발생

ETF 개요

티커	KRBN US EQUITY
상장일	2020-07-30
운용사명	KraneShares ETFs/USA
총보수율(%)	0.79
기초지수	IHS Markit Global Carbon Index
가중 방식	-
주당 가격(달러)	55.99
보유종목 수	15
시가총액(백만달러)	1,870.1
시총/전략/지역	- / Energy / Global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2년 2월 4일 기준

주가 추이



기간	1W	1M	3M	YTD	Sharpe(% , 1Y)
수익률	8.8	5.4	33.5	127.3	3.8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2년 2월 4일 기준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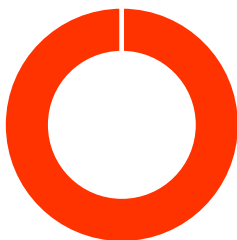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비중 (%)
MOZ22 Comdty	ECX EMISSION Dec22	24.2
ECH2 Cumcy	EURO FX CURR FUT Mar22	21.0
USD Cumcy	US Dollar	17.6
STONEX	-	10.9
ZCAZ22 Comdty	CA Carbon Allow 21Dec22	7.7
EURO FUTURE	EURO FX CURR FUT	4.6
EUR Cumcy	Euro	2.6
MOZ23 Comdty	ECX EMISSION Dec23	2.2
UKEZ2 Comdty	UK Emiss Allow Fu Dec22	2.1
GBP Cumcy	British Pound	1.9
합계		94.7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2년 2월 4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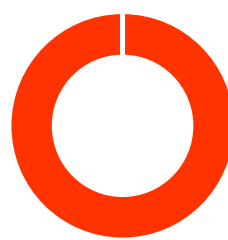
국가 구성

국가	비중(%)
● U.S.	1.3



섹터 구성

섹터	비중(%)
● Government	1.3



자료: Bloomberg 분류 기준, 유진투자증권, 2022년 2월 4일 기준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2년 2월 4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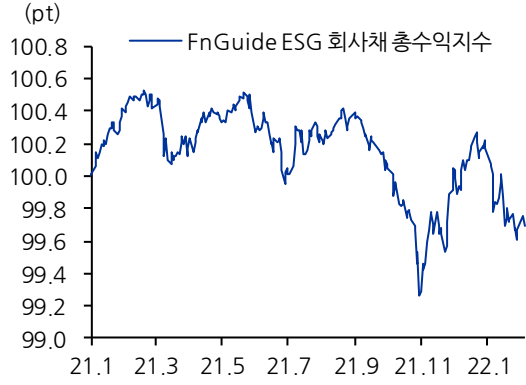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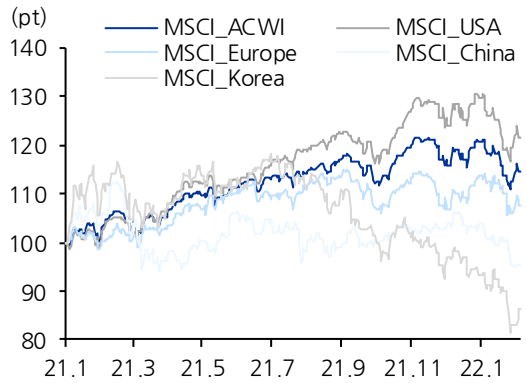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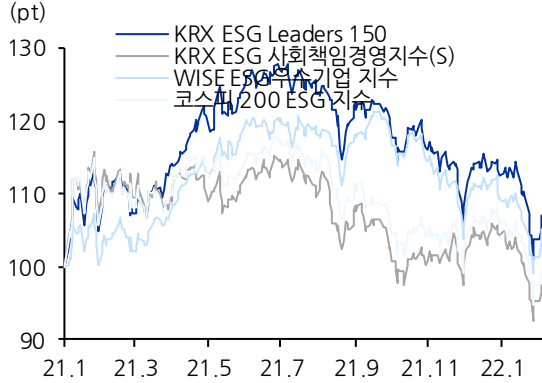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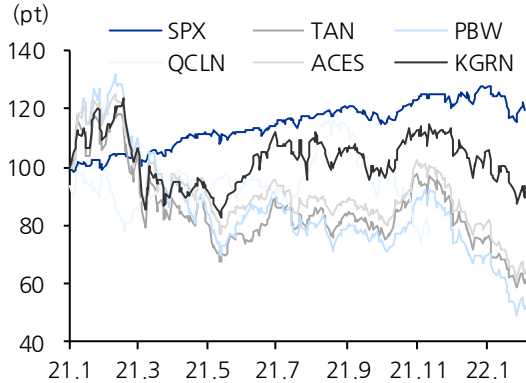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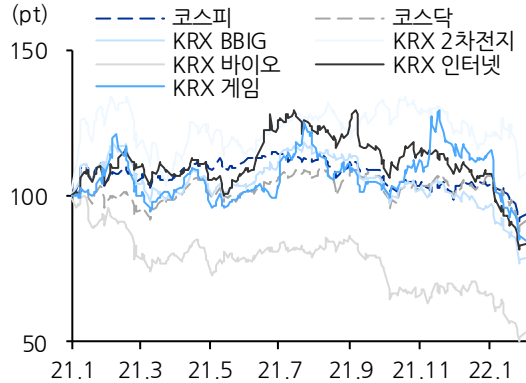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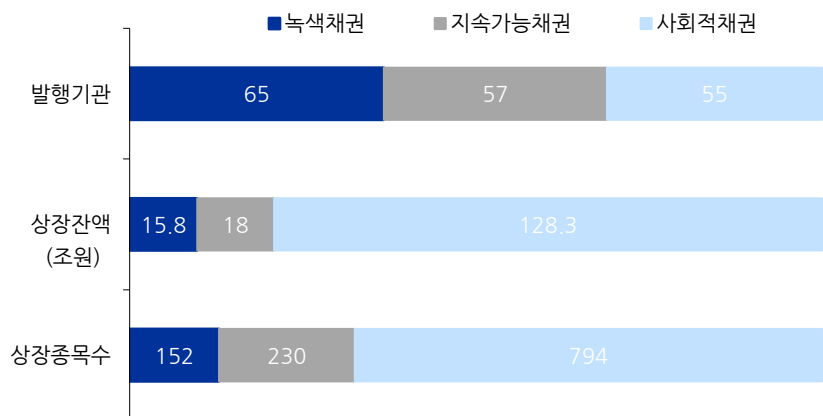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녹색채권	산업금융채권 22 신이 04000112-1(녹)	2022/02/04	2.25000	20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2-1(1-1)(사)	2022/01/27	1.82600	96,4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2-1(1-2)(사)	2022/01/27	2.18000	11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2-1(1-3)(사)	2022/01/27	2.36500	22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2-1(1-4)(사)	2022/01/27	2.67000	44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2-1(1-5)(사)	2022/01/27	2.88100	27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2-1(1-6)(사)	2022/01/27	2.97400	23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2-1(1-7)(사)	2022/01/27	2.94100	14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2-1(1-8)(사)	2022/01/27	2.87100	4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2-1(1-9)(사)	2022/01/27	2.80100	20,000
녹색채권	한국서부발전 51-2(녹)	2022/01/26	2.78100	20,000
녹색채권	롯데렌탈 56-1(녹)	2022/01/26	2.93300	253,000
녹색채권	롯데렌탈 56-2(녹)	2022/01/26	3.11700	107,000
녹색채권	롯데렌탈 56-3(녹)	2022/01/26	3.25200	50,000
지속가능채권	대구도시공사 2022-01(지)	2022/01/26	2.71500	20,000
녹색채권	에스케이브로드밴드 52-2(녹)	2022/01/25	2.92100	50,000
녹색채권	한화솔루션 279-1(녹)	2022/01/24	2.76500	275,000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적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i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3자로부터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6%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12.31 기준)